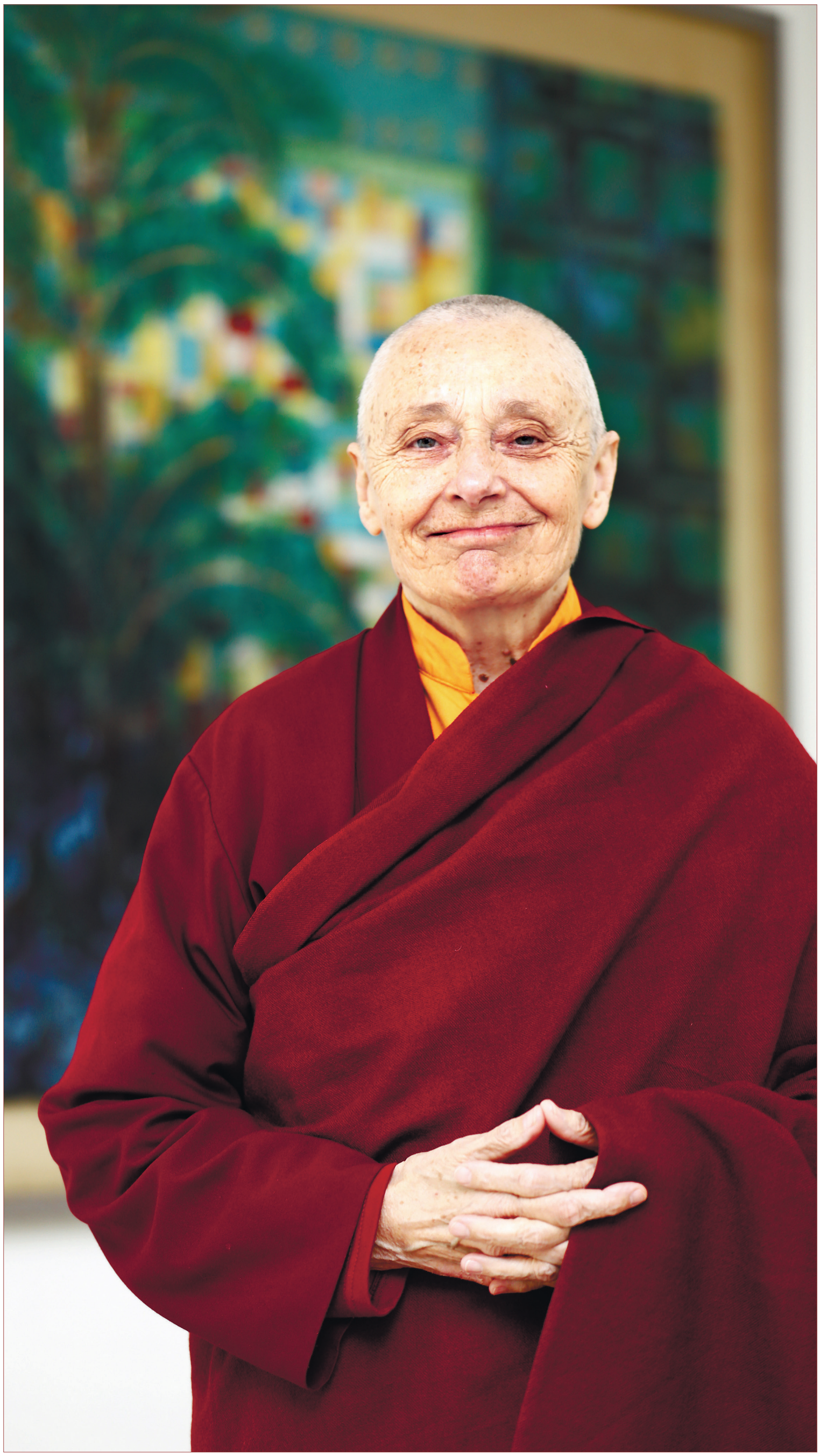
성 편견 없애면 불교 진면목 드러난다



텐진 빠모(1943~) 스님은… 영국출신으로 20세에 인도에 가서 티베트 불교의 계를 받은 뒤 12년 동안 히말라야 설산 동굴에서 수행했다. 하산한 후에는 불교 내 여성 인권 향상을 위해 노력해왔으며 북인도 비구니 사원을 세워 비구니 양성에 나섰다. 스님은 2005년 달라이라마로부터 '6인의 서양 비구니위원회 위원'으로 위촉돼 비구니 승단이 없는 나라에서 비구니 전통을 살리는 역할을 맡고 있으며 여성불자 네트워크인 사카디타 인터내셔널 회장을 맡아 활동 중이다. 스님은 〈나는 여성의 몸으로 붓다가 되리라〉란 책을 통해 가르침을 전한 바 있다.

INSIDE

B3 조준호의 미얀마 수행처 이야기
빠옥 총림 가기까지는

B5 문화 – 국립중앙박물관
불교회화실 교체, '중생을 구원하는 보살'

B6 학술
지광국사탑, '한글묵서' 첫 확인

특별인터뷰

텐진 빠모 스님 (샤카디타 인터내셔널 회장)

세계적인 영적 지도자들 대부분은 남성이다. 불교는 비구니라는 여성 승려를 인정하지만 아직까지도 많은 부분에서 차별은 존재한다.

서양인 최초로 티베트 불교에 귀의한 비구니인 텐진 빠모 스님은 그동안 샤카디타 인터내셔널 회장으로 세계 여성불교계를 이끌고 있다. 불교 내 여성인권 향상을 위해 노력해 온 스님은 최근 세첸코리아가 한국여성정책연구원에서 개최한 '마음과 친구하기' 명상 법회에 참석해 불자들에게 수행 요체를 전했다. 이 기회를 빌어 텐진 빠모 스님과 대화를 통해 몇가지 궁금한 점을 들어볼 수 있었다.

정리=노덕현 · 김지원 기자

Q 텐진 빠모 스님께서는 청소년기 불교서적을 읽으며 불교와의 인연을 쌓으신 것으로 알려져 있습니다. 이후 인도에서 우연히 '캄트롤 린포체' 이름을 보고 귀의하신 것으로 알고 있습니다. 굉장히 멀리 떨어진 인도에서 출가수행자로의 삶을 결심하기란 쉽지 않았을 듯합니다. 당시에 어떤 마음이었는지 알고 싶습니다.

A 어릴 적부터 난 인간은 본래 완벽한 존재라고 믿고 있었습니다. 하지만 어떻게 완벽해질 수 있는지에 대한 질문을 가진 채 살았죠. 18세에 처음으로 불교 경전을 읽고 나서, 바로 부처님께서 온전함으로 가는 길을 명쾌하게 설명하신다는 것을 알게 됐습니다. 1960년대인 당시는 히피시대 전이었어요. 영국에서 글로써 영적인 길을 안내하는 곳은 거의 없었습니다. 당시 영국에서는 저를 이끌어 줄 스승이 없었기 때문에 20세 때 인도로 갔습니다. 그리고 21세가 된 생일에 스승이신 캄트롤 린포체를 만났고, 3주 뒤 스님이 됐습니다. 그 후 현재까지 저는 인도에서 살고 있습니다.

Q 텐진 빠모 스님께서는 1970년대 히말라야에서 3시간만 잠을 자며 12년간 수행하신 것으로 알려져 있습니다. 특히 3년간 한국불교에서 말하는 이른바 '무문관'처럼 사람을 접하지 않는 독거수행을 하셨는데요. 독거수행 과정에서 가장 크게 느끼신 것은 무엇인가요?

A 오랫동안 집중수행 안거 한 결과, 지복이나 명료함 같은 명상체험으로 안거를 잘 했는지, 못 했는지를 아는 것이 아닙니다. 바로 우리의 번뇌가 감소했는지를 보면 됩니다. 역경이 닥쳤을 때 우리 마음이 그 역경을 잘 다루기 위해 변했는지 즉, 내면의 변화가 있었는가가 바로 안거를 잘 했는지 판단할 수 있는 기준입니다.

이는 위대한 스승이신 아띠샤 존자께서 하신 말씀입니다. 안거수행은 우리의 수행을 더욱 깊게 하고, 마음을 산란하게 하는 대상 없이 내면으로 더 깊이 들어갈 수 있는 시간을 허락하는 것이라 생각합니다.

하지만 안거수행과 함께 이 세상에서 사는 것도 중요합니다. 세속에 살면서 마음의 성품을 기를 수 있기 때문입니다. 혼자 안거수행만 하면 자기 실제보다 훨씬 뛰어난 수행자라고 착각할 수 있죠.

Q 그렇습니다. 스님께서도 다양한 강연에서 일상의 삶속에서 정진, 자기 자신에 대한 알아차림을 강조하셨습니다. 생활 속에서 꾸준히 수행해 나가기 위한 마음가짐을 듣고 싶습니다.

A 일상생활을 수행으로 삼고, 의미 있게 활용하는 수행방편을 소개해 드립니다. 가장 중요한 것은 일상생활에서 알아차리는 것, 깨어있는 것입니다.

두 번째로는 마음을 여는 수행입니다. 이는 내가 만나는 모든 사람이 행복하고자 하고, 고통을 원하지 않음을 아는 것입니다. 나 자신이 그렇듯, 다른 사람들도 마찬가지란 점에서 타인과 공감하자는 것입니다.

세 번째는 우리에게 일어나는 일 자체보다 우리가 그 일에 대해 어떻게 반응하는지가 더 중요하다는 사실을 기억하는 것입니다. 어떤 일이 일어나도 우리가 현명하게 다룰 수 있는 기회로 삼는 것이죠. 현명하게 상황을 다룬다는 것은 내면의 좋은 성품을 기르고, 남에게 해가 되지 않는 것을 의미합니다.

그렇게 하기 위해서 하루를 시작할 때, 짧은 명상 수행이나 기도로 시작하는 것이 매우 중요합니다.

어떤 수행도 괜찮아요. 자신이 좋아하는 수행으로 시작하는 것이 중요하죠. 아주 오랫동안 할 필요도 없고, 다만 하루를 잘 시작하기 위해 하는 것입니다. 주로 아침 일찍 하는 것인데, 시간은 자율적으로 5분, 10분, 20분, 1시간 등 정할 수 있습니다. 시간의 길이는 중요하지 않습니다. 그 시간을 얼마나 잘 활용하는가가 더욱 중요합니다. 그리고 가족들과 시간을 보내거나, 직장을 다니는 등 일상생활을 지내는 것입니다.

서양인 최초 티베트 출가
20세 인도서 캄트롤 린포체 만나 발심, 히말라야 수행
12년 수행 · 하산 후 여성운동
불교 내 성차별 폐지 나서

우리는 사회적인 삶을 살고 있습니다. 하루 종일 여러 사람들을 만나고, 여러 상황들을 경험하면 일상에서 마음의 성품을 기를 수 있고 우리에게 일어나는 상황을 현명하게 다룰 수 있는 기회가 주어집니다.

우리가 하는 모든 말은 그 전의 말과 관련이 있고, 우리의 동기와 관련이 있습니다. 그래서 만나는 모든 사람들이 행복을 원하고 고통을 원하지 않는다는 것을 알아보는 일이 중요합니다. 우리는 최소한 친절할 수 있어요.

근본적으로 알아차림은 아주 단순한 것입니다. 하지만 문제는 우리가 자꾸만 알아차림을 잊어버린다는 점이죠. 알아차림의 의미는 우리가 있는 곳에 존재하는 것을 의미합니다. 그래서 부처님께서 걷거나 앉아 있거나 서 있거나 누워 있을 때 내가 그러고 있다는 것을 알고 앎을 가지라고 말씀하셨습니다. 또 이 순간으로 들어오게 하는 아주 좋은 방편은 알아차림을 호흡으로 연결하는 것입니다. 오직 이 순간에만 호흡을 할 수 있기 때문입니다. 그래서 호흡으로 연결할 수 있다면, 호흡을 알아차릴 수 있다면 우린 현존하고 있는 것이죠. 양치질을 하는 등 생각이 필요 없는 일상의 일과들도 알아차림의 대상으로 삼을 수 있어요.

B2면에 계속